

#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로 산업 인력난 해소

### 전남 등록 외국인 5만3506명 돌파...5년간 증가율 54.5% 용역 착수...중장기 외국인력 유치·관리·정책 방안 등 마련

갈수록 전남도내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지역 여건과 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이민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지역 등록외국인 수는 5만명(5만3506명)을 돌파했으며 최근 5년간 외국인 증가율은 54.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내 이민정책의 싱크탱크인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전남연구원에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이 용역은 외국인 주인과 기업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산업수요와 특성에 맞는 외국인력을 유치·육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용역과제는 ▲외국인 주민·기업체 실태조사 ▲중장기 산업수요 분석 ▲외국인력 통합공급 관리 체계 구축 ▲외국인 유형별 정주형 이민정책(유치·정책·통합) 모델 발굴 등이다.

지난 11일 착수보고회에는 이민정책, 고용노동, 사회통합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석해 효과적 용역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현재로서 지역 주도의 적극적 이민정책만이 지방소멸 위기 속에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할 최선의 대안"이라며 "지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전남형 이민정책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소심 승소

### 14건·44억원 규모 유사 소송 판결 확정되면 환급 위기 탈출

광주시 자체 조례를 근거로 징수한 4억원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에서 항소심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지원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동북 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대상과 범위가 법적 근거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광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수도 공사 등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원 1구역 재개발 조합에 4억48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조합 측은 광주 징수 조례가 환경부 표준 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광주시는 환경부 표준 조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을 아우르는 것이어서 광역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광주 징수 조례는 수도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제정됐다고 항변했다.

2심 재판부는 "광주 징수 조례는 제정 경과, 규정 내용, 규율 대상 등에 비해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광주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과 14건, 44억원 규모 유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마음건강 챙기세요" 광주시 정신건강 문화행사 다채

광주시가 오는 18일까지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정하고 5개 자치구와 함께 정신건강 문화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8일 광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사업을 위해 헌신한 개인

과 단체를 표창하고 '아침마당', '인간극장' 등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금희 아나운서가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광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스트레스지수 측정, 정신건강 자가검진,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자살 유족 윈스톱 서비스 등도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정신건강 문화행사 누리집 (<https://mhday.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국적 관심 'G-페스타' ...광주 맛으로 시즌2 연다

### 17~26일 김치축제·동명커피산책 등 '테이스티 광주' 6개 축제 개최

올해 첫선을 보인 지역 축제·행사 통합 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 시즌1'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우수사례 언급 등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테이스티(Tasty) 광주'를 주제로 내세운 '시즌2'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9일간 17개의 축제·행사·마이스를 담은 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를 진행중이다.

예술 콘셉트로 구성된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는 13일 아시아문화주간을 끝으로 마무리했으며,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는 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김치축제, 광주식품대전, 광주주류관광페스타, 광주서창역새축제, 광주송정남도맛페스티벌, 동명커피산책 등 6개의 축제를 통해 광주의 맛을 알린다.

'G-페스타 광주'의 가장 눈에 띄는 강점은 개별 축제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축제 간 연계와 통합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즌 1에서는 지역 이스포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열린 '빛고을캠페스트 이스포츠대회'에서 관람객이 젊은 층이라는 점을 겨냥해 'G-페스타' 유료 행사인 랫츠플로피와 비어페스트의 할인쿠폰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린 광주 최대 맥주축제인 '비어페스트'는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과 무대를 공유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또 같은 기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대표 문화콘텐츠 전시회 '광주에이스페어'는 3만 6000여명(2023년 3만5000여명)의 관람객과 3억 6500만달러 규모(2023년 2억달러)의 수출상담

액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충장발광(光)'을 주제로 금남로와 충장로 일원에서 열린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광주버스킹 월드컵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주간과 연계되면서, 숙박할인 프로모션이 선착순 마감되기도 했다.

광주의 성공 사례를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지역 축제 통합브랜드 우수사례로 'G-페스타 광주'를 언급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G-페스타 광주' 시즌1에 호응해 주신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맛을 주제로 열리는 'G-페스타 광주' 시즌2에도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 5번째)가 지난 1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전남도-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주요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협약

### 각국 기업의 수출·협력 증진 동반성장 생태계 마련 기대

전남도가 지난 1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업무협약하고 경제협력 강화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최승호 퍼시

피코 에너지코리아 대표이사, 하윤식 GE 버노바 코리아 사장, 이승준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한국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 기업과 전남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협력 증진 ▲전남도와 미국 간 기업의 수출 활동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협력 ▲이 밖에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분야 다양한 협력 등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과 미국 간 투자와

무역 증진을 위해 1953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 경제단체다.

현재 국내외 기업 800여 회원과 1600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한국시장에 투자 진출할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통상 증진 정책을 제안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미래 지향적 산업 비전과 좋은 여건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며 "협약을 계기로 전남 기업이 세계 무대에 힘차게 뻗어나가고 미국 기업은 전남과 함께 더 크게 성공하는 동반성장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